



순창군이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안과 검진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면서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특출히 해내고 있다.

순창군, 무료안과 검진 '호응'

당뇨병 환자 1900여명 대상... 현재 673명 당화 혈색소·단백뇨 검사 완료

순창군이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안과 검진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면서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특출히 해내고 있다.

군은 지난 8월부터 당뇨병 환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검진과 소변검사(미세 단백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일 현재 673명에 대해 안과검진과 당화 혈색소, 단백뇨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진자 673명중 8명이 당뇨망막병 증상을 보였고 3명이 증식성당뇨망막병 증상을 보여 2차 검진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군은 이들 11명에 대해서는 2차 검진 후 결과에 따라 정밀검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방문보건 대상으로 등록해 지속적인 개별 건강관리도 진행할 계획이

다.

당뇨망막병증과 증식성당뇨망막병증은 우리 눈의 망막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서 특유한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시력저하현상이 발생하며 방치 시에는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안과검진은 상인실명 원인 1위가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중진 결 감 안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또 검진의 전문성을 위해 관내 안과 의원과 협약을 진행해 추진해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당뇨병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들로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며 "이번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

역 주민들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과검진 이외에도 군은 소변검사(당화혈색소, 미세 단백뇨)도 함께 진행해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2월까지의 검진대상자가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이장회의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과 검진을 원하는 당뇨병환자들은 보건의료원이나 각 읍면 진료소 지소 등을 방문해 접수증을 받아 협약을 맺은 안과를 방문하면 합병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전화 650-521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수도분야 사업 1100억원 투입 전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단위사업 하수도정비 사업 마무리 환경부 승인 과정 중

남원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하수도분야 사업에 1,1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도에는 기존 6개 사업지구 184억과 신규 3개 사업지구 16억 원이 책정되어 총 200억원이 확정됨으로써 선진 하수도 행정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남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하수도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어 환경부 승인 과정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 하수도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원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시가지 지선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수행 중에 있다.

금지 하부권인 용전지구 마을하수처리장과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기존 마을 노후하수처리장에 대한 대대적 개량사업을 위한 신규사업 200억원의 예산확보는 남원시 행정의 발표와 기술행정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시는 시가지와 농촌지역에 하수처

리시설을 병행 추진하면서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써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거듭나 명실공히 친환경적인 관광도시로 방향을 짚을 계획이다.

이번 예산 또한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실이며, 가시적인 시설의 확보보다 후세대에 부담을 줄이고 노후 되어가는 도시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정력의 산물로써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주민의 눈으로 규제개혁 다시보기 특강

규제개혁 발괄·개선 유도

순창군이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눈으로 규제개혁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개혁을 발굴해야 할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시선에서 규제를 다시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마련한 교육이다.

특히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규제개혁 전문 강사인 나우경영연구소 김보연 소장을 강사로 섭외했다.

김보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들이 규제개혁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규제를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보이는 만큼 주민의 눈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군민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김소장은 여러 자치단체와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규제에 대해 느끼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규제개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육을 받고 스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는 내가 하는 작은 규제에도 주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와 법제처 발굴 규제개선 50선 사례와 관련된 군 자치법규 속의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생활 속 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자치부 우수사례로 선정·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고창군, 건강 프로그램 마련

내달까지 영양교육·정신보건·뇌 체조 교실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뇌 체조를 통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들과 민남의 장을 만들고 있다.

군 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몸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몸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폭력예방과 친구간의 우정을 높이기 위한 뇌 체조 기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단전 호흡법, 면역력을 증가 시키는 장 운동 실천 등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꿈과 비전을 명상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비만아동을 비롯해 키 성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스트레칭과 신체 균형감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요법을 지도하고 있다.

영양교육으로 아동들이 직접 영양간식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고 식품 구성법을 통해 5대 영양소를 알기 쉽게 교육하면서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사춘기 시기 감정의 조절 장애 및 학습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관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크게 웃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건강습관을 실천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양한 기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비만아동을 비롯해 키 성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스트레칭과 신체 균형감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요법을 지도하고 있다.

영양교육으로 아동들이 직접 영양간식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고 식품 구성법을 통해 5대 영양소를 알기 쉽게 교육하면서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사춘기 시기 감정의 조절 장애 및 학습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관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크게 웃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건강습관을 실천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민의 장, 대상자 선정

순창군이 최근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16년 군민의 장 애향장에 (주)아이상승인파크 김상진(74)대표를, 효열장에 금과면 김경순(83, 여)씨를 선정했다.

애향장에 선정된 김대표는 직성면 출신으로 제2대, 제3대 재경 직성면 향우회장과 제14대, 제15대 재경 순창군 향우회장을 역임하면서 향우들의 화합과 고향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또 제9대 사단법인 육천사화문화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향토문화 계승에도 남다른 공을 남겼다.

또한 모교 직성초등학교 강당 안막 설치비와 구내 전차 설치비 등에 5백여 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발전기금 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 직성면치 발전, 지북마을 할머니 노인당 시설개선, 복지회관 에어컨 설치비 공공화장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향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애향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효열장에 선정된 금과면 내동마을로 시집을 6. 25전쟁으로 남편과 사별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부모를 섬긴 점이 인정 받았다.

김씨는 유복자 아들은 물론 조카딸까지 키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심을 잃지 않았고 특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사 망할 때까지 약 11년 동안은 자극 정성으로 모신 덕분에 시어머니가 천수를 누리 주위의 귀감을 사 효열장에 선정됐다.

순창군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11회 순창 정류축제 기념식에서 군민의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고창군, 세계절 사진공모전 시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6 고창의 세계절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정류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아름다운 세계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고창의 세계절 전국사진공모전'에서 '모양성의 봄(김석철,정음시)'이 금상을 수상했다.

'모양성의 봄'은 고창읍성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포착했으며 구도 및 색상부분에서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선운사 가을풍경(박문기,고창군)'과 '형상(김광석,목포시)'은 고창군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사진공모전에서 군은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5점, 가작 15점, 입선 20점을 포함해 총 43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 총 2150여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했다.

4일 '고창군 비전다짐의 날' 행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수상작품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에 전시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대표단, 우호교류도시 중국 빈주시 방문

우호증진 방안·경제교류 등 모색

임실군은 지난 2012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산둥성 빈주시를 지난날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방문했다.

빈주시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단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지역산업체 대표, 필봉농약단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양 도시간 농업, 경제,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와 우호증진 방안 및 경제 교류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임실군과 빈주시 대표단 교류방문 추진과 임실치즈제품 및 영경귀 기능성제품의 판매망 구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방문단은 제2회 중국옛날마을 포럼 및 제18회 철화동대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해민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필봉농약공원을 펼쳐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빈주시는 발해의 해안과 황하의 내륙에 인접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한반도와 위도가 비슷하고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의 고향이기도 하며, 385만여명의 인구나 전체면적은 9,600km²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하였고, 유전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목화·대추·복숭아 등의 농업이 발달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임시회 개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최근 남원의료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발전자문위원회 2016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운영에 관한 자문과 조언, 지역사회 요구사항 등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더불어 고객의 권리와 권익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과 객으로서 역할 수행하며 남원의료원 현안 및 2016년 경영실적을 보고받고,

이동장 모임 활성화, 건강검진 및 의료진 홍보강화, 거동불편 노인대상 검진차량지원, 노후된 의사숙소 보강 등 의료원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전북도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는 2015. 5. 26.창립식을 갖고 17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정우진 남원시의사회회)되어 남원의료원 운영 및 사업에 관한사항, 환자 및 보호자의 권익, 지역사회요구 반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